

# ‘코리안 메이저리거’, 올 여름 트레이드 가능성은?

부상서 복귀 임박한 류현진, 다저스 선발진 ‘포화상태’  
 캐나다 언론 “오승환, 플레이오프 진출 팀서 활약가능”  
 “추신수, 2016년 제외 건강한 모습 못봐...연봉 걸림돌”

현지 언론들이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을 트레이드 대상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다. 현지시간 7월 31일에 마감되는 논 웨이버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이들의 거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상 복귀가 임박한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이지만 다저스의 선발진은 현재 포화상태다. 전반기 6경기에서 류현진은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12를 기록하며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원정경기에서 사타구니 부상을 입어 전반기를 일찍 마무리했다. 류현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다저스의 선발진은 탄탄해졌다. 클레이튼 커쇼, 리치 힐, 미에다 겐타, 알렉스 우드에 마이네리에서 풀업된 워커 블러, 볼펜에서 선발

로 넘어온 로스 스트리플링까지 선발 자원들이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16일 MLB닷컴과의 인터뷰에서 “로스터 변경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현재 우리에게 6명의 건강한 선발진이 있고 류현진도 돌아온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 또한 류현진의 트레이드 가능성을 제시한다. LA 타임스는 19일(한국시간) “다저스는 새로 영입한 매니 마차도의 연봉과 미에다의 보너스 지급으로 최대 400만 달러밖에 여유가 없다”며 “연봉수준을 낮추기 위해 2루수 로건 포사이드, 류현진 외야수 아시엘 푸이그를 보내려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가능성에 비해 내구성엔 인제나 의문부호가 달린다.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

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드 설이 나온다. 캐나다 현지 언론인 데일리 하이트는 17일 토론토가 논 웨이버 트레이드 마감시한 전에 내놓아야 할 선수 중 한 명으로 오승환을 꼽았다. 이 매체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출신인 오승환은 이번 시즌 존 김슨 토론토 감독에게는 가장 믿음직한 투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무리는 아니어도 플레이오프 진출 팀에서는 견고한 셋업맨이나 7회에 출전할 투수로 활약할 수 있다”며 오승환의 가치를 설명했다. 전반기 오승환은 45경기에 나와 4승 3패 11홀드 2세이브 평균자책점 2.82의 준수한 기록을 보였다. 특히 MLB 올스타전 휴식기 직전까지는 5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선보였다. 리그 상위권 팀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다. 52연속 출루를 기록한 추신수



(36·텍사스 레인저스) 역시 트레이드설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봉 조건이 걸림돌이라는 평가다. 텍사스 현지 언론인 WFAA는 19일 “추신수는 90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3, 출루율 0.405, 장타율 0.506, 18홈런, 43타점을 보이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꿈인 올스타전 출전도 이뤄졌다”고 추신수를 치켜세

웠다. 또 “추신수는 클럽하우스 내에서 베테랑으로서 리더십을 지녔다”며 “그의 꾸준함은 어린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매체는 “추신수는 36살이지만 2016년을 제외하고는 시즌 내내 건강한 모습을 보

였다”고 밝혔다. “지명타자로 나와 팀의 수비에는 도움을 많이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텍사스가 추신수를 매력적인 트레이드 카드로 만들려면 연봉의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 숨막히는 폭염, 야구는 여름스포츠여서 괜찮을까

“선수 보호 차원 실수 있는 규정 마련돼야” 지적



폭염 속 운동선수들의 몸, 괜찮을까.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고 땀이 흐르는 요즘 날씨에도 프로야구, 프로축구 선수들은 달리고 또 달린다. 21일 서울은 37도를 웃돌았다.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오후 6시에는 35도 밀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폭염이다. 기상청은 22일 서울이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측했다. 21일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가 맞붙는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프로야구가 열렸다. 오후 3시부터 몸을 푸는 선수들은 땀을 비오듯 쏟아냈다. 일부 선수는 더그아웃에 앉아 연신 물을 마시고

땀에 젖은 셔츠를 갈아입었다. 프로축구도 마찬가지였다. 포항, 창원, 춘천에서 3경기가 개최됐다. 선수들은 90분 경기 내내 굵은 땀방울을 흘렸다. 이런 날은 체력 소모가 극심해진다. 선수들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폭염 때 실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일부 팬들의 지적이다. 규정상 폭염 취소는 가능하다. 6~9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되는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됐을 때 경기운영위원회 지역 기상청에 확인 후 심판위원회 경기관련인이 합

의해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올 시즌에도 퓨처리그 경기는 일부 폭염으로 취소된 적이 있다. 그러나 1군 경기에서 폭염 취소는 아직 없다. 잠실 더그아웃에는 선수들이 조급이라도 땀을 식힐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코끼리 에어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축구에는 미세먼지 관련 규정이 있지만 폭염 때 경기 취소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프로축구는 여름에는 폭염을 피해서 주간 경기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수 보호차원에서 전 후반 각 30분 무렵 약 1분간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고교 주말리그 유소년 야구 등도 여름에 대회를 열 때가 있다. 빠듯한 일정 탓에 달다고 경기를 연기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폭염에 대한 규정도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대한체육회의 후시 기침에 따라 시간조정을 하고 있다. 햇살이 너무 뜨거운 시간은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

## 추신수, 연속 출루 행진 52경기서 막 내렸다

시즌 타율 0.291로 낮아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의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이 막을 내렸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일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전, 4타수 무안타 2삼진을 기록했다. 이날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선발 카를로스 카리스코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출루에 실패했다. 1회말 첫 타석에서 3루수 앞 땅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클리블랜드 선발 카를로스 카리스코를 상대로 4구 만에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다. 추신수는 6회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추신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난 공에도 스트라이크를 선언하면서 추신수는 불리한 카운트에서 승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삼진을 당했다. 8회 네 번째 타석에 나온 추신수는 2루수 앞 땅볼로 선행주자를 아웃시켰다. 추신수는 1루에서 대주자

로 교체됐다. 추신수의 연속 경기 출루 행진은 52경기에서 마감됐다. 52경기 연속 출루는 텍사스 구단 단일 시즌 최장 기록이다. 이날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91로 낮아졌다. 텍사스는 무려 21안타를 맞고 3-16으로 완패를 당했다. 4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시즌 41승 58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렀다. 뉴스

잡았다. 상대 상위 타선을 상대로 공 10개만 던져 가볍게 1이닝을 막아냈다. 이틀 연속 홈드를 챙긴 오승환은 시즌 13번째 홈드를 기록했다.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74로 더욱 낮아졌다. 토론토는 4-1로 승리했다. 뉴스

## 오승환, 볼티모어전 1이닝 무실점

이틀 연속 홈드

오승환(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시즌 13번째 홈드를 챙겼다. 오승환은 22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경기에서 8

회초 등판, 1이닝 퍼펙트 피칭을 선보였다. 4-1로 앞선 8회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한 오승환은 첫 타자 팀 베킴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이어 3구 만에 조나단 스콧을 1루수 뜬공으로 처리한 후 다음타자 아담 존스까지 2구 만에 중견수 뜬공으로

잡았다. 상대 상위 타선을 상대로 공 10개만 던져 가볍게 1이닝을 막아냈다. 이틀 연속 홈드를 챙긴 오승환은 시즌 13번째 홈드를 기록했다.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간 오승환의 시즌 평균자책점은 2.74로 더욱 낮아졌다. 토론토는 4-1로 승리했다. 뉴스

## 정현, 애틀랜타 오픈 3번 시드...1회전 부전승으로 통과

5월 8일 마드리드 오픈 후 두달 반만에 복귀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한국체대·세계랭킹 22위)이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BB&T 애틀

랜타 오픈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정현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막하는 이 대회에 남자 단식 3번 시드를 받았다. 그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면서 16강에 직행했다. 5월 8일 ATP 투어 마드리드 오픈 1회전에서 탈락한 정현은 발목 부상 때문에 이후 투어 대회에 나서

지 못했다. 메이저대회인 프랑스 오픈, 윔블던도 건너뛰었다.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 온 정현은 이번 대회에 와일드카드를 받고 출전, 두 달 반 만에 복귀전을 치른다. 정현은 2회전에서 테일러 프리츠(21·미국·65위)·람쿠마르 라마나탄(24·인도·161위)의 1회전 경기 승자와 맞붙는다. 이번 대회 톱 시드는 올해 윔블던 4강까지 오른 존 이스너(33·미국·8위)에 돌아갔고, 2번 시드는 닉 키리오스(23·호주·18위)가 얻었다. 이스너는 이 대회에서 2013~2015년 3년 연속 우승을 일궈고 지난해에도 정상에 섰다. 키리오는 2016년 이 대회 남자 단식 정상에 섰다.

## 손흥민, 토트넘과 2023년까지 계약 연장

병역의무 해결 못했지만 강한 믿음 재확인...내달 아시안게임 출전 예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6)이 소속팀 토트넘과 계약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토트넘은 구단은 20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기간은 2023년까지”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2015년 8월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5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2년을 앞두고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총 140경기에 출전해 47골을 터뜨렸다. 토트넘은 손흥민에 대해 “박지성을 넘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 선수가 됐다. 또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손흥민은 아직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이번 재계약으로 토트넘의 강한 믿음을 재확인하게 됐다. 손흥민은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와일드카드(24세 이상)로 합류할 예정이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아 4주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된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프리시즌 미국 투어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2018~2019시즌 리그 개막전(8



월11일)에 출전한 뒤 한국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단 발표대로라면 손흥민은 14일 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아시안게임 조별리그부터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